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⑤ 문수봉(文殊峰)



사자 탄 문수보살이 봉우리 위로...

문수봉은 의상봉에서 시작하는 의상봉능선의 마지막 봉우리로 높이는 727미터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속한다. 봉우리 북쪽 자락의 청수동암문에서 의상봉능선, 산성능선, 그리고 비봉능선이 만난다. 봉우리 위에 있는 두꺼비 모양의 바위 등에 걸터앉아 기도하던 지혜로운 자녀가 태어난다는 전설이 전한다.

문수봉은 고려 시대에 탄연(坦然) 스님이 창건한 문수암(문수사)에서 명칭이 유래한다. 탄연 스님의 속성은 손(孫), 호는 묵암(默庵), 시호는 대감국사(大鑑國師)이다. 스님은 고려 문종 24년(1070)에 밀양에서 태어나, 19세에 개성 광명사의 혜소(慧燧) 스님에게 사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인종 23년(1145)에 왕사가 되고, 의종 13년(1159)에 지리산 단속사에서 입적했다.

탄연 스님은 출가 후 국내의 이름난 산을 찾아다니며 수도하다가 어느 날 북한산에 들어서게 되었다.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으나 인가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멀리 길을 가는 동자가 있었다. 스님이 동자에게 길을 물으려고 따라갔으나 좁게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동자는 계곡을 건널 때나 바위를 오를 때 힘든 기색이 없었다. 동자의 걸

것이 문수보살의 뜻을 알았다. 문수보살이 동자로 하여금 스님을 동굴로 인도하게 한 것이다. 스님은 그 동굴을 문수굴이라 칭하고 수도를 하기 시작했다. 스님이 경을 읽으면 언제나 산속의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모여 독경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스님은 불법에 정진하는 한편, 틈틈이 서예를 연마했다. 스님은 나뭇가지를 꺾어 붓으로 삼고 땅바닥을 종이로 삼아 글씨쓰기를 했다. 굴 바닥이 움푹 팬 것도 스님이 글씨쓰기 연습을 많이 한 때문이라고 한다.

스님은 예종 4년(1109)에 문수굴 옆에 절을 지어 문수암이라 칭했다. 문수보살이 지혜의 화신이었으며, 지혜가 불도를 이루는 근본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문수암은 탄연 스님이 창건한 이래 뛰어난 스님들이 수행한 장소로 유명하다. 고려 불교의 중흥조인 태고 보우국사가 문수암에서 정진할 때 청의동자로부터 차 한 잔을 받아 마시고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청의동자 역시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전해진다.

탄연 스님과 보우국사뿐만 아니라 문수암에서 수도한 뛰어난 스님들은 모두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이래 문수보살에 대한 신앙이 성행했다. 삼각산 문수암은 오대산 상원사, 고성 문수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문수성지이다.

문수암과 문수봉은 국내 제일의 기도처로 알려져 고려 시대에는 의종이 친히 등정하였고, 조선조 문종 원년에는 연창 공주가 문수암을 중창하여 왕실의 원찰이 되기도 하였다. 영조 때의 암행어사 박문수는 그 아버지가 문수암에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한다. 근대에 들어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어머니가 문수암에서 백일 기도를 올린 뒤 이승만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 인연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8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문수암에 올랐다. 현존하는 건물로 대웅전과 나한전, 산신각 등이 있는데, 대웅전의 문수보살상은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가 모신 것이고, 석가모니불은 영친왕 이은(李垕)의 비인 이방자(李方子) 여사가 모신 것이다.

문수암이라는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이 문수암에 올랐을 때 쓴 것이다. 문수암은 6·25 전쟁 때 불탄 것을 1957년에 중창하였다. 불타기 전에는 오백 나한을 모신 나한전이 유명하였다. 1983년 허혜정 스님이 문수굴을 굴법당으로 장엄하여 불자들의 기도와 참배 공간이 되었다.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에서 명칭이 유래한 문수봉은 마치 지혜의 완성을 상징하는 듯 우뚝 솟아 있다. 봉우리 위에는 문수보살을 호위한 동자들처럼 다양한 모양의 바위가 둘러싸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걸친 풍화작용으로 기이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지니고 있다. 정상으로 오르는 바윗길은 험난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혜와 구도의 참맛을 되새기게 한다.

<애기꾼> 신이산

자연마저 응축시킨 '禪 정원'의 미학



신종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⑤ 교토 료안지



교토 료안지(龍安寺)의 석정. 가래산석이 정원 양식의 절정인 료안지의 석정은 15개의 돌로 삼라만상을 표현하고 있다.

모래 위 하얀 자갈이 물결무늬를 짓는다. 그 위에는 돌이 무리를 지어 함께 또는 따로 배치되어 있다.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다. 오로지 돌과 자갈, 이끼 그리고 벽담이 만들어내는 오묘한 풍광을 몰끄러미 바라볼 뿐이다.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채워진 듯 하다. 오로지 이 공간에는 돌과 자갈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자연 풍광과 내가 있을 뿐이다.

자연을 압축해 조형한 일본의 정원. 이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색에 잠기게 된다. 어떤 이들은 압축된 자연에서 선의 묘미를 찾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정원 양식에 대한 탐구를 한 번쯤은 하게 만든다.

실제 일본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정원 문화다. 특히 가래산석이(枯山水) 정원은 일본 정원 미학의 정점이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 등에 의해 산수의 풍경을 표현하는 정원 양식인 가래산석이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무로마치 막부는 선종 사찰들을 정책적으로 건립했는데 모든 사찰에 물을 사용하는 기존 형식의 정원을 만들 수 없었다. 결국 사찰 정원을 위한 '가래산석' 양식이 창안됐고 그 후부터 물을 쓰지 않더라도 정원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정원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사쿠테이키(作庭記)>라는 책이다. 정원에 대한 세계 최고(最古)의 고서(古書)인 <사쿠테이키>에는 어떻게 정원을 꾸미고 조경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한국에도 김승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사업본부장이 이를 번역해 2012년에 출간하기도 했다. 책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연 풍광을 정원에 가져다 놓았는지를 알 수 있다.

"땅과 연못의 모양에 따라 각 장소에 맞는 풍정(風情)을 구상하면서 자연풍경(生得の山水)을 회상해 '그 장소는 이와 같았구나' 하고 견주어 생각하면서 정원을 만들라. 정원을 만들 때 옛 명인들의 뛰어난 작품들을 지침으로 삼아라. 그리고 집주



료안지 석정의 입구. 쿠리(庫裡)라고 한다.



석정의 모형을 보고 있는 일본 학생.

15개 돌과 모래, 이끼 등으로 삼라만상 표현... 日 정원의 진수

인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풍정(我風情)에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라." <사쿠테이키 中>

책을 번역한 김승운은 이 같은 일본의 조경 문화의 원인을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백제의 노자공(路子工)에서 찾았다. 이에 따르면 백제인 노자공은 당시 일본에 수미산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기술돼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발전돼 가래산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교토 료안지(龍安寺)의 석정(石庭)은 가래산석이의 정점이다. 현재 일본의 대표 선종 종단인 임제종 사찰인 료안지는 1450년 무로마치 막부의 무사 호소카와 가즈모토가 도쿠다이지 가문의 별장을 개조해 만든 것이다. 이후 오닌의 난으로 소실됐지만 1499년에 재건돼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

는 교토의 고찰이다. 이 사찰 역시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료안지의 석정은 정방형으로 동서 25m, 남북 10m의 넓이로 1500년 경 토쿠후호 제케츠 등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선승들에 의해 조성됐다고 알려져 있다. 가래산석이 정원의 정점인 만큼 나무와 풀, 물은 절대 사용되지 않았으며, 모래 위에 풀 한 포기 없이 흰 자갈, 이끼, 돌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다.

15개의 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5개, 2개, 3개, 2개, 3개씩 무리지어 배치하였는데 돌의 모양, 크기, 배치를 통해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 15개의 돌은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15개가 다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주 전체를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끊임없는 참선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흙으로 낮게 만들어진 벽담도 눈여겨 볼만 하다. 유채기름을 사용해 반짝인 흙으로 만들어진 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쁨으로 인해 특유한 빛깔을 자아내게 됐다.

이 같은 조형들이 어우러진 료안지의 석정은 일본인이 생각하는 '선(禪)의 미학'의 전형이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저술한 이영령 중앙일보 고문은 이를 두고 "일본 정원이란 돌의 언어로 묘사된 자연 풍경의 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료안지가 비취해 둔 사찰 안내서에는 석정에 대해 이렇게 써 있다. "석정을 보시는 분은 이 독자적인 정원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만의 자유를 더욱 넓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4백여 년 전, 일본 고승이 돌로 남긴 화두를 모든 것을 채우려고만 하는 현대인들이 타파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매한 질문을 던진다.

mot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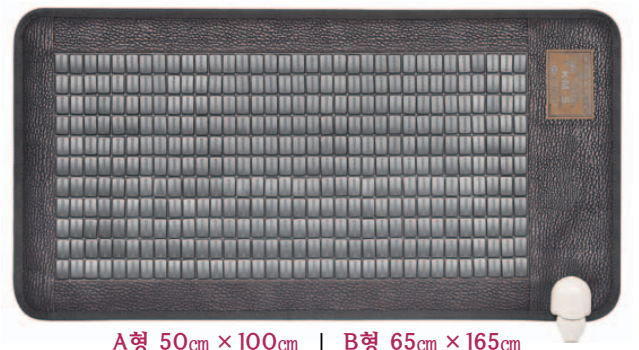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cm x 100cm | B형 65cm x 165cm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침시에는 온열 매트로!!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책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율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매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